

내달 5일 개통...전라선 KTX 타보니



코레일은 다음달 5일 KTX-산천을 전라선(익산~여수)에 투입하기에 앞서 21일 익산역~여수역 간 시승식을 가졌다. 250여명의 시승객들이 여수엑스포역에서 시승을 위해 열차 옆에 줄을 서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편리하고 쾌적...시속 135km 아쉬워

여수~익산 1시간 46분...47분 단축 박람회 개최이전 속도개선 이뤄져야

다음달 5일 KTX 전라선(익산~여수) 공식 개통에 앞서 'KTX-산천'이 전라선에 첫 선을 보였다. 익산~여수엑스포역 180.3km 구간을 시범운행한 것이다.

21일 오전 10시35분 여수시 여수엑스포역. 'KTX-산천' 열차(8량·363석·총 길이=201m)가 미끄러지듯 승강장에 들어섰다.

여린이와 다문화 가족 등 250명의 시승객을 태운 'KTX-산천'은 출발 직후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높이며서 평균 135km 속도로 내달렸다. 전라선 선로는 기존 일반선로를 개량, 속도를 높였다. 개량된 일반선로는 고속철도 전용선로(최대운행속도 300km)보다 최대운행속도

가 늦지만, 일반선로보다는 빠르다. 현재 전라선 구간 중 익산~삼례(13.6km), 여수~여천(9.5km) 구간 23.1km를 제외한 모든 선로는 복선이다. 1988년 시작된 전라선 복선전철화 공사는 예산 2조9010억원이 투입됐다.

시속 150km(영업속도 230km·최대운행속도 150km)로 속도를 올린 열차는 여천~순천~구례구~곡성~전주역을 거쳐 출발 1시간46분만에 익산역에 도착했다.

최대속력 140km인 새마을호의 경우 이 구간을 운행하는데 2시간 31분이 걸리니 47분 단축된 셈이다. 코레일 측은 내년 5월 초까지 신호체계를 수동식에서 전자식으

로 개선하면 최대운행속도가 230km까지 빨라지면서 운행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 신호체계(800m 간격 설치)는 기관사가 기관실에서 '정지' 또는 '운행' 신호를 육안으로 살핀 뒤 운행 또는 정지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인데, 200km 이상 속도로 달릴 경우 육안 식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로에 신호감지기를 설치, 기관실에 설치된 모니터로 자동 전달될 수 있는 전자신호체제로 바뀌 속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호체계 개선 결정이 뒤늦게 이뤄지면서 내년 5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전까지 속도개선(150km→230km)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추가로 요구한 사업비 400억원이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승객들은 복선전철화와 KTX 투입으로 열차여행이 쾌적하고 편

리해졌다고 입을 모았지만 운행속도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김모(여·43)씨는 "그동안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여수를 오갔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직접 타보니 시간도 단축되고 편했다. 현재보다 속도 향상이 이뤄지면 KTX-산천을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투빨리 신호체계를 개선해 속도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다음달 5일부터 하루 평균 5회(상행 5회·하행 5회)씩 KTX-산천을 운행할 것"이라며 "KTX-산천을 타고 많은 관광객이 여수세계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속도 개선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수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소요시간은 3시간32분으로 종전 단선시대 새마을호보다는 1시간 46분 각각 단축된다.

/이승행기자 gle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호남권 경제발전위원회 분열 위기

광주·전남-전북, 사무총장 인선 감정싸움에 사안마다 엇박자

발족한 지 2년이 넘는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호남권 발전위)가 삐걱거리고 있다.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한 광주·전남과 전북간 마찰에, 해묵은 감정싸움까지 섞이면서 자칫 호남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호남권 발전위에 따르면 지난 8일 공모를 거쳐 2년 임기의 사무총장에 최영기 현 사무총장이 최종 선 임됐으나 전북의 반발로 인해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2년 단위로 사무국 위치와 대표 지자체를 변경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광주시에 이어 전북도가 올 하반기부터 대표 지자체가 될 뒤 광주·전남 위주의 사무총장 인선 등 호남권 발전위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정현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규정을 만들 때 사무총장 인선은 대표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구두합의가 있었는데 광주·전남이 수적 우위로 밀어부쳤다"며 "이런 식으로 하니 전북이 광주·전남에 반기를 들고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와 전남은 전북이 함께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서류전형·면접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별다른 대책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북은 새만금사업, 군산국제공항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후보지 신청 등 각종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광주·전남과 엇

박자를 보였으며, 여기에 사무총장 인선문제로 '감정 다름'까지 더해지면서 광주·전남과 전북의 간격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5+2 광역경제권 설정, 국책사업제외 등 정부의 호남권 소외 정책이 계속되고, 광역경제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호남권의 내분은 지역 발전에 치명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호남권 발전위 관계자는 "공동위원장인 광주·전남·전북 단체장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토론했며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다른 광역권에 서는 볼 수 없는 이 같은 마찰에 속탄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윤현석기자 chadok@kwangju.co.kr

전남 고령농가 공핍에 허덕인다

영농규모 영세...연소득 500만원 이하 30%, 500~1500만원 40%

전남 고령농가 중 70%가 연소득 15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등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발전연구원(이하 전남발전위)이 21일 구례·고흥·함평·화순·담양 등 5개 지역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 2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고령농가의 39.7%는 연간 소득 500만~1500만원을 올린다고 답했다.

또 연간 소득이 500만원도 안된다고 답한 응답자도 무려 32.8%에 달하는 등 응답자의 72.3%가 연간소득이 150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응답했다. 연간 소득이 1500만~2500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7.4%, 2500만~3500만원인 경우 6.7%, 3500만~4500만원 2.1% 등이었다. 4500만~5000만원 0.7%, 5000만원 이상 0.7%에 불과했다.

이들 고령농업인의 농업소득 비중은 벼농사가 5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과수농사 11.7%, 축산 7.4%, 시설원예 6.6%, 노지채소 5.9%로 파악됐다.

영농규모도 1ha미만이 69.1%에 달하는 등 매우 영세했으며 2ha이상은 3.5%에 그쳤다. 고령농가의 58.5%가 전업농가로 조사됐고 소득이 부가돼 창출될 수 있는 겸업농가는 25.5%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향후 영농규모 계획을 확대하고 싶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9.2%에 그쳤고 '현 상태를 유지'(48.6%)하거나 '현 상태보다 축소'(20.6%)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다.

이외 고령농업인들은 영농활동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농산물 가격변동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영농인력 부족, 영농자금 부채, 농산물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장덕기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은 "고령농가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소득은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들의 영농활동·농촌생활·노후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기독교명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1. 9. 14(수) ~ 10. 7(금)
합격자 전원 입학금 면제 장학혜택
입학 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 학 원 062) 605-1115
광 신 대 학 교

우암학원 창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가볼만한 남도 가을축제 ▶12면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